

Issue Comment

- ✓ 3/18, 라이트론/케어젠 감사의견 거절, 상장폐지 사유 발생
- ✓ 최근 외부감사인 권한 강화되며 감사의견 공포 확산
- ✓ 금융위, 조건부 상장폐지 유예 개선안 마련 중

라이트론/케어젠 - 감사의견 거절, 상장폐지 사유 발생

- ▶ 라이트론(A069540/KQ) : 시가총액 768 억원(3/18 종가 기준)
 - 광(光)트랜시버 부품 및 모듈 전문 업체, 자회사 메타비스타 통해 액화수소 사업 영위
- ▶ 케어젠(A214370/KQ) : 시가총액 8,218 억원(3/18 종가 기준)
 - 단백질 펩타이드 기반 화장품 및 의료기기 생산/판매 전문 업체

→ 3/18 일 장 마감 후 감사보고서 제출, 감사의견 거절

▶ 감사의견 거절 근거

- 라이트론 :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제도 불충분, 일부 거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 부적합
- 케어젠 : 매출/매출원가와 매출채권/재고자산 관련 적정성 확인 불충분

→ 감사의견 거절 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38 조에 의거,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,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

→ 상장폐지 통지 받은 날부터 7 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
→ 라이트론/케어젠,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임

→ 이의 신청 후 재감사 추진 확률 높는데, 재감사로 인한 기업 비용 증가 및 거래 정지 기간 장기화 가능성은 존재

▶ 감사의견 공포 확산되고 있으나 금융위의 기업 부담 완화 노력도 진행 중

- 외부감사인 권한 및 책임 강화 →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新외부감사법, 시행 2018.11.01)
-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, 과징금/직무정지 등

- 그러나, 금융위원회, 기업 외부감사 부담 줄이기 위한 상장관리 규정 개선 추진, 3월 중 상장폐지 조건부 유예 등 개선안 마련
예상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-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